

# “K 게임, 세계진출 위해 배경지역 역사·신화 먼저 연구”

게임과학연구원-디그라한국학회  
‘디그라 게임과학 클래스’ 개최  
국내외 게임관련 연구동향 소개

한국 게임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전 지역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인 연구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스페인 게임 연구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게임이지만, 각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임과학연구원은 디그라한국학회와 함께 26일 서울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 11층 콘퍼런스룸에서 국내 최초 ‘디그라 게임과학 클래스’를 열고 국내외 게임 관련 연구 동향 소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태진 디그라한국학회장, 빅터 나바로 리메살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대학 교수, 같은 대학의 베아트리스 페레스 자파타 박사가 참석했다.



26일 서울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 11층에서 열린 ‘디그라 게임과학 클래스’에서 윤태진 디그라 한국학회장(왼쪽부터), 빅터 나바로 리메살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수, 베아트리스 페레스 자파타 박사가 참여해 강연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국가별 시리즈로 진행되는 ‘디그라 게임과학 클래스’는 게임 과학을 주제로 한 대중 강연 행사다. 세계 게임 연구자들의 게임과학 연구를 정기적으로 국내에 소개하고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대중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먼저 윤태진 디그라한국학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게임 산업의 국제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태진 한국학회장은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제적인 교류”라며 “게임 학과, 대학원 등 어떤 형식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게임을 좋아하는 수많은 비평

가들, 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연에는 스페인 게임 과학연구원들이 나섰다. 가장 먼저 빅터 나바로 리메살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대학 교수가 게임 콘텐츠 내 신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같은 대학 소속인 베아트리스 페레스 자파타 박사가 게임 속에서 다루어지는 트라우마의 형성 과정 연구를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빅터 나바로 리메살 교수는 게임 콘텐츠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리메살 교수는 “게임 내 콘텐츠의 대부분은 신화를 통해 형성된다. 신화는 과거의 특정한 이야기가 아닌,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게임 연구 선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리메살 교수는 “게임은 국제적인, 하나의 문화지만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보통 게임은 북미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등 미국에 많이 집중돼 있다”며 “그러나 각 지역의 고유한 신화, 역사적 맥락은 다르다. 게임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그 지역의 신화나 역사 자체를 먼저 연구한 곳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게임 콘텐츠에서 표현되는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두 번째로 강연을 맡은 베아트리스 페레스 자파타 박사는 “트라우마가 대중문화의 상업적인 요소로 활용된다”며 “보통 게임 내에서 표현되는 트라우마는 개인적이고, 서구적이며, 과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 내에 녹아든 트라우마 내용 역시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인 문맥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중기부, 싱가포르서 2.7억 弗 펀드 조성

K-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韓 기업에 1670만 弗 의무적 투자  
스타트업 아세안 진출 확대 기대감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는 투자회사들이 한국 스타트업 등에 167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싱가포르의 방위·우주항공 글로벌 기업 탈레스는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부터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후 싱가포르에 있는 콘래드 오차드 호텔에서 ‘K-Innovation Day in Singapore’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투자사 파빌리온(Pavilion Capital), 벡텍스(Vertex), OCBC 등 현지 거점 대형 투자

사 80개와 탈레스, 오라클, 다쏘시스템 등 글로벌 기업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 52개사 관계자 등 총 3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박2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싱가포르 거점 3개 투자사인 K3 벤처스(1억 2000만 달러), Lion X 벤처스(1억 달러), Qualgro 파트너스(5000만 달러)와 현장에서 투자결성식을 갖고 총 2억7000만 달러(한화 약 378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1670만 달러(약 230억원) 이상을 스타트업 등 한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27년까지 아세안 지역 글로벌펀드를 현재보다 10억 달러 이상 더 확대해 우리 스타트업에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 한국 벤

처·스타트업의 글로벌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의 탈레스는 중기부의 대표 민관협력 창업지원사업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내년부터 참여한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 프로그램 기존 참여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 다쏘시스템은 ‘정글’, ‘다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 창업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스마트팜 등 딥 테크(Deep Tech) 중심으로 엄선한 한국 11개 스타트업이 참가해 발표하는 ‘K-Global Star IR’도 현지에서 펼쳐졌다.

IR 행사에 앞서선 싱가포르 거점 글로벌 투자사 3곳이 국내 스타트업 3개사에 총 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싱가포르 콘래드 싱가포르 오차드에서 열린 ‘K-Innovation Day in Singapore’ 1부 행사에서 ‘창업진흥원-글로벌 기업 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 업무협약(MOU)’ 체결에 임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하는 계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싱가포르 투자사인 CENTO가 크레파스솔루션에 100만 달러(14억원), 말레이시아 투자사 RHL가 퍼밋에 220만 달러(30억원), 싱가포르 투자사 Altara가 하이퍼라운지에 74만 달러(10억원) 투자를 각각 결정했다.

이외에 ‘K-스타트업 밋업’에선 KS C 싱가포르 입주 기업 등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K-스타트업 37개사가 현지 투자자 및 전문가들과 1대1 만남의 자리도 가졌다.

밋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업템포글로벌과 맵시는 현장에서 싱가포르 글로벌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 장관은 “한국 스타트업의 뛰어난 기술력에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중기부는 K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에 앞장서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아세안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얼음정수기 AIS 3.0’ 104개 정수성능 인증

코웨이, 기술력 인정... 신뢰 쌓아

코웨이가 국내 얼음정수기 제품 중 가장 많은 정수 성능 인증을 확보,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코웨이는 또 정수기 사업 초기부터 제품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인 필터 기술력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정수기 필터 연구개발과 주요 필터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6일 코웨이에 따르면 얼음정수기 AIS(AIS) 3.0은 국내외 공인 기관으로부터 총 104개 항목의 정수 성능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국내 얼음 정수기 중 최다 인증

으로 ▲국내 KC인증 47개 항목 ▲정수기 국제 인증기관 미국수질협회 WQA(Water Quality Association) 인증 79개 항목 등 바이러스, 박테리아부터 환경호르몬까지 다양한 유해물질에 제거 성능을 인정받았다.

코웨이 아이온 얼음정수기 역시 국내외 인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등 총 97종에 달하는 항목의 인증을 획득해 뛰어난 성능을 검증받았다.

코웨이는 해외 인증 획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을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코웨이 AIS(아이스) 3.0 정수기.

지난 2008년 업계 최초로 정수기 국제 인증 기관인 미국 WQA로부터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다.

WQA에선 정수기 성능은 물론이고 물이 닿는 모든 부품에서 약 200가지의 유해·독성물질 불검출에 대한 안전성과 제품의 구조적 완성성 시험까지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 ‘골드실(Gold Seal)’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어촌 빈집에 5억 투입, 복지시설 만든다

대중기협력재단, 빈집 재생사업

어촌에 있는 빈집들이 귀어인,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시설로 탈바꿈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7일 충북 오송 H호텔에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완도군, 남해군과 함께 ‘민관 협력 어촌 빈집재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처음으로 어촌의 빈집을 재활용해 예비 귀어인의 숙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주택 등 어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이다.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본격 구축했다.

사업대상지는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완도군에서는 연말부터 소안면 일대 빈집 3채를 리모델링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하우스와 출향민·예비 귀어인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조성한다.

남해군에선 설천면과 고현면 일대의 빈집 3채를 활용해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어 교육 및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